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4 0506

Vol. 105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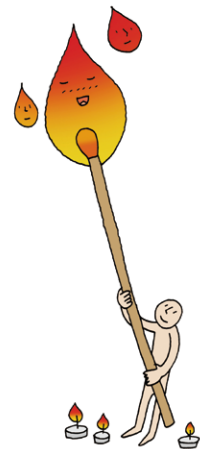
Hello 닥터_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뇌혈관센터장 나정호 교수 Medical point_ 국가적 뇌졸중 대책 Health touch_ 장기이식 - 간



가장 뜨거운 곳에 있어야 한다

우리 모든 삶의 일 속에 최고와 최선이 분명히 있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상대가 있다.
나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과 무대를 선택한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상 나는 전부를 넣어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고 있는 일에 감동받기를 바란다. 그 세포들이 지지고 볶으면서 거대한 에너지가 발산되기를 바란다. 내가 선택한 일과 그것을 위해 최고와 최선이기를, 그것들을 위해 불타오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에너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가장 뜨거운 곳에 있어야 한다.

박칼린 / 달 '그냥' 중에서



인하대병원

May
+
Jun 2014 Vol.105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 한걸음

- 04 **기념사** 개원 18주년 기념사
- 06 **개원 열여덟 해에 붙여.....**
오월의 글을 읽으며
- 08 **Hello 닥터** 뇌혈관센터장 나정호 교수
- 10 **Medical point** 우리나라의 국가적 뇌졸중 대책과 인하대병원
- 13 **Health touch** 장기이식 - 간, 현재도 진행중인 간이식의 모든 것
- 16 **질환 돋보기** 급성복통에 대하여...

사랑 두걸음

- 18 **Special people** 붉은악마 회장 반우용
- 20 **어디까지 가봤니** 서울 한양도성 길
- 24 **모르면 지는거다** 재미있는 월드컵 이야기

나눔 세걸음

- 26 **Today INHA** 공적 사회공헌 활동 소개
- 28 **궁금해요** 범명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 29 **병원 탐방** 김단탐병원 이준섭 병원장
- 30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시리즈 ④ - 낙상 관리
- 32 **인하싹표** 영화동호회 활동
- 33 말벗 도우미
- 34 **톡톡 약물상담** 가정에서의 올바른 약의 보관과 폐기
- 35 **INHA Focus** 인하대병원 진료예약 서비스 안내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홍보영상
- 39 **Info desk** 무료공개강좌 + 파랑새 소식



표지 | 나정호 교수 | 뇌혈관센터장

개원 18주년 기념사

화합과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동력 추진

사랑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우리 병원이 개원 1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개원 이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오늘 이 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장기근속 표창을 받으신 분들, 공로 및 모범직원으로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병원이 이만큼 성장해 오기까지 노력해 주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도약의 동력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병원을 인천 대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원 이래 병원과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전교직원이 화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과정들이 모여 지금 '인하대병원'의 유·무형 가치를 형성했으며, 20년 가까이 성장해 올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도약이나 정체나를 결정지를 중대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대형 병원들의 등장으로 외형 경쟁, 부분별한 환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수익 감소, 급변하는 의료 정책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부재 등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내외부적 요인들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의료 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규제 개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산업, 특히 병원 경영은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이른바 '의료전쟁'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동력만으로도 약을 논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동력은 화합과 혁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취임 이래로 전 교직원들의 화합과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도약의 동력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화합과 혁신속에서 발전전략 추진

화합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최근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고'를 살펴보아도, 선장, 승무원 및 관련 기관이 초기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합심해서 대응했다라면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돕는 마음가짐을 지닐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며,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져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혁신은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잘못된 습관 또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가짐,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외부 환경 변화를 감

지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병원들의 대응방식은 어떤지 살펴보고, 우리 병원에 가장 맞는 변화는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 위에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올해 초 응급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연내에 병원 전 면부를 증축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열 것입니다. 송도에 세워질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대 비급여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 및 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우리 병원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동력을 잃은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것입니다.

사랑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3·1운동 독립선언문에는 "기여보비(耑與補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이바지하여 돕고 모자람은 보태준다'라는 뜻으로서 공생과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이 인천 지역 대표 병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나아가 환자를 생각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인하가족 여러분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병원 발전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개원 18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의료원장 김영모





오월의 글을 읽으며

그날이 그립지 아니한가

벗님네들아

(글_ 손병관 / 소아청소년과 교수 · 전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논과 밭에는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이 뒤엎,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 깊이 묻어 놓았다. 차가움이 영긴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날날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묻어 놓았었다” (보리, 한혹구)

우리도 그랬다. 온 누리 으뜸 학문인 의학을 갈고 닦아 그 열매를 이 땅에 펼치려고 벼딤목과 말뚝을 깊게 깊게 박았다. 내 나라 서쪽 끝자락 미추홀에 정성 다해 티 닦고 지경 다져 주추 놓은 거기에 우리들의 꿈의 씨앗 묻어 놓았었다.

‘최고가 되기 위한 우리의 다짐’ 을 함께 묶어서.....

“풀냄새가 물큰 향수보다 좋게 내 코를 스치고, 청머루 순이 뻗어 나오던 길썰 어디메선가 한나절 썩이 울고, 나는 활나물 호납나물 젓가락나물 참나물을 찾던, 잃어버린 날이 그림지 아니한가 나의 사람아” (푸른 오월, 노천명)

그날도 푸르렀다. 개원준비팀의 지친 마음을 살포시 만져주던 창문 밖 목련이 지고, 장미향기 그윽하던 그 날 우리의 얼굴은 화사했고 우리의 미소 싱그러웠다. 그렇게 우리 병원 문 열던 그 날이 그림지 아니한가 벗님네들아. IMF도 또 이런저런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그레질 속 해결하며 일구던 그 일과 그때가 그리워지는 건 우리들의 땀과 정성이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리니.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인들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스승의 노래, 강소천)

훌륭한 스승도, 좋은 선배도, 웃으며 퇴원한 환우들도, 침대에 보에 얼굴 가려져 서쪽 엘리베이터로 내려간 이들도,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동료들도 되돌아보면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마중물ियो 안소였음을 생각하며 흥얼거린다. 어디간들 언제인들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 주신 그 모든 이들.

“온 겨울의 어둠과 추위를 다 이겨 내고, 봄의 아지랑이와 따뜻한 햇볕과 무르익은 그윽한 향기를 온 몸에 지니면서, 너, 보리는 이제 모든 고초와 사명을 다 마친 듯이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성자인 양 기도를 드린다”

(보리, 한혹구)

그러고 싶다. 그래야 한다. 보리가 어디 머리를 숙이더냐고 따지지 말고 그 깊은 속 뜻 되새기며 기도하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병원이 그윽한 향기 내는 곳이 되어, 포근히 보듬어서 기쁨을 듬뿍 주는 그런 곳이 되도록 두 손 모으자.

“아무 피도 갖지 않는다. 아무 획책도 모른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먹어서 부르면 웃고 즐긴다. 싫으면 쪼그리고, 아프면 울고, 거기에 무슨 꾸밈이 있느냐? 시퍼런 칼을 들고 험박하여도, 맞아서 아프기까지는 병글병글 웃으며 대하는 것이다. 이 넓은 세상에 오직 이이가 있을 뿐이다”

(어린이 예찬, 방정환)

어린이날 아침 소파 선생의 글에서 우리는 또 배운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던 위즈워스도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몸 아프고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해 순수함을 변치 말고 어떤 힘들도 여유와 웃음으로 이겨내며, 때론 돌아가고 때론 쉬며, 느루 갈지라도 우리의 비전인 ‘으뜸 의료서비스로 존경받는 병원’ 을 만든다는 꾸밈없는 한마음, 그것만은 깊이 품고 손에 손잡고 함께 가자.

“탈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재 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라. 반타고 꺼질진대 애제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타고 생남기*으로 있으시오, 탈진대 재 그것조차 마저 탐이 읍으니다”

(사랑, 이은상) *생남기 : 나무의 옛글자(생나무)

‘우리의 정성, 열정, 다숨’ 다 태우고 마저 태우며 가야한다. 힘들어 하는 내 이웃이 우리 옆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야할지니.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던 만해의 애끓던 심정으로 우리도 돌아가 ‘시작은 친절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실천하여 ‘마저 탐이 읍음’ 을 몸으로 얘기하자.

긴가민가하면 병원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없어서 더 위험!

“나에게 온 환자의 막힌 혈관 흐르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

“뇌졸중은 90%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원인이 뻔한데 못 막을 이유가 없죠.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심장병 등 5가지 원인이 큼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부정맥입니다. 혈전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가족력과 나이가 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절 가능 위험인자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_ 이정희 자유기고가 포토그래퍼_da view studio 송인혁 실장)



나정호 교수

Profile

나정호 교수는 19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미국 UCLA 뇌졸중센터에서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대한 연수를 하였다. 국내외 다양한 임상연구와 저술 활동 및 논문을 발표 게재하고 있으며, 동아일보 뇌졸중 부문 베스트닥터로 선정되었고 현재 세계적 혈전용해술 관찰 연구인 STS-MOST의 한국 대표직과 인하대병원 뇌혈관센터장을 맡고 있다.

문제를 찾아내서 치료하는 최고의 기술과 기술로 안 될 때 환자를 안아줄 수 있는 예술가의 몫까지 해야 최고의 의사라고 한다.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예술가적 기질이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뇌졸중 환자의 제대로 된 치료를 걱정하는 나정호 교수를 만났다.

게으름으로 시작한 스타일인데 오히려 인상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나 교수, 꼭 외모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틈만 나면 뇌졸중 홍보를 위해 동분서주 뛰는 그의 모습이 그러하고, 유난히 뇌졸중 질환 가족력이 많은 그에게 위험대상은 모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명감이 그러하다.

뇌경색과 뇌출혈에 대해 먼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뇌졸중은 혈액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과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혀 터지는 뇌출혈이 있어요.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원인과 치료도 다르기 때문에 초반 구별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뇌경색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환절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인가요?

우리나라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연중무휴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특정기간에만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건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계절 요인이 크지 않고 오히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 탈수 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1분 1초가 중요한데 골든타임이 있겠죠?

심한 두통 또는 의식이 없거나 하면 병원에 빨리 오지만 한쪽 시야가 잘 안 보인다든지 할 때는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쉬거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열이면 열 대부분 스트레스 받은 일이 꼭 있죠. 자식에게 연락해서 모시고 오거나 병원 예약 후 방문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올수록 혈전용해제를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3시간 이내에 오면 좋습니다. 초기 1~2시간, 처음 3일 그리고 1~2달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하겠네요?

모든 병원이 시술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원 낭비입니다. 뇌졸중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사회 전체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 병원을 지정하고 3일 이내에 중요한 급성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핀란드의 경우 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부럽습니다.

인하대병원의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10년 동안 우리 병원을 거쳐 간 뇌졸중 환자는 7~8천 명은 죽히 될 겁니다. 우리 병원의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지역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뇌혈관 센터는 급

성기 뇌졸중 환자치료를 위해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 표준 진료지침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있어요. 진료지침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정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의료의 질은 바로 표준화라고 할 수 있죠.

후유증이 무서운 질환이라 치료의 갈등이 있을 듯싶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생명의 의미는 늘 딜레마입니다.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 년씩 침대 생활을 하는 환자를 보면 후회 아닌 후회를 하는 가족을 보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렇다고 선을 정해 놓고 치료할 수는 없고 후유증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드라마틱한 경과 등으로 기억에 남는 환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진 환자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환자의 경우가 먹먹하게 남죠. 되짚어보고 돌아보는 과정에서 저를 또 성찰하게 됩니다. 고등학생 한 명과 대학생 한 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원했어요. 고등학생의 경우 의식도 안 좋고 경련도 일어났는데 치료가 잘 되어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지인이었고 한쪽 팔다리 사용은 못 했지만 걸어서 들어 왔는데 치료에 반응을 안 했어요. 결국, 1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결과가 극명하고 젊은 친구라 가슴에 남더군요.

나 교수는 정복되지 않은 뇌에 대한 관심으로 신경과를 선택했다. 또 9남매나 되는 외가 쪽 식구 중에 뇌졸중 환자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된다. 삼촌 5명 중 4명이 뇌혈관으로 운명하셨고 2~3명은 고생하고 계신단다. 나 교수는 가족들에게도 뇌졸중에 대한 홍보를 잊지 않는다. 덕분에 의심한 한 분은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전한다.

나 교수에게 모든 환자는 바로 가족이다. 연세 있으신 환자와 수면제 처방으로 실랑이하고, 꽤 피웠던 담배를 끊고 환자에게 금연을 권하면서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있는 환자를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을 사명으로 알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자신의 인생 중 경험하는 뇌졸중



우리나라의 국가적 뇌졸중 대책과 인하대병원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원인 첫 번째 질환이었다가 2014년 심근경색증에 이어 두 번째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장애 환자는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뇌졸중은 치매, 반신마비, 실어증 등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환자 하나가 생기면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 그리고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 중 가장 많은 입원비를 지출하는 단일 질환이 뇌졸중입니다. 결국 국민들 모두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뇌졸중은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나 학회 주도의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뇌졸중 대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중요 질환들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뇌졸중은 2004년부터 적용된 대상입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치료 시작까지의 시간, 입원이나 퇴원 시 필수 처방 및 검사 항목 등 주로 병원 내의 실행지표를 평가하여 뇌졸중 진료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하대병원



전 세계에서 6명에 한 명꼴로 뇌졸중에 걸리고,
6초에 한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한다.

뇌졸중 평가는 사업 시행 이래 계속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역 심뇌혈관 센터 지정 사업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성 질환은, 일단 발생하면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므로 모든 지역에 환자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뇌혈관 센터를 지정하는 사업을 2009년부터 각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권역 심뇌혈관센터는 최상의 진료서비스 외에도, 지역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권역의 예방 홍보사업을 펼치는 등 각 권역 심뇌혈관 질환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하대병원은 2012년 실시한 인천권역 지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심뇌혈관센터로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실 (Stroke Unit) 인증 사업

뇌졸중 환자는 급성기에 각종 감시 장비를 갖춘 전문치료실에서 숙달된 뇌졸중 진료팀에 의해 체계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훨씬 더 좋은 예후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뇌졸중 환자는 뇌졸중 치료실로 입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졸중 전문치료실의 설립을 촉진, 지원하고 또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치료실 설립지원 및 인증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0개 병원을 인증하였습니다. 인하대병원도 2009년에 이미 뇌졸중 치료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필자는 현재 학회의 인증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학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뇌졸중 센터 인증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인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Stroke, CRCS)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on Agency, NECA)에서 주요 질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현재는 근거 창출 임상연구 국가사업단으로 (National Strategic Coordinating Center for Clinical Research, NSCR) 주체가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역시 주요 대상 질환으로, 2005년부터 시작한 뇌졸중 임상연구센터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임상연구 및 사업을 진행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 진료

은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즈음, 국가의 안전 관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가 안전처가 신설된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아무쪼록 실효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그래야만 이번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 사회에 국가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닐 터인데, 뇌졸중도 그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_ 나정호 교수 / 뇌혈관센터장)

지침을 발간, 보급하고 (그림 1), 전국적인 규모의 뇌졸중 등록 사업(Registry)을 진행한 것으로 현재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하대병원도 CRCS 뇌졸중 등록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필자는 뇌졸중 진료지침 급성기 치료 집필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날(10월 29일) 행사

뇌졸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요 사망원인이고 또한 첫 번째 장애원인입니다. 더욱이 인구의 고령화 및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현대 성인병의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 세계에서 6명에 한 명꼴로 뇌졸중에 걸리고, 6초에 한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그림 2) 다양한 예방관리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매년 10월 29일에 개최하는 뇌졸중의 날 행사입니다. 인하대병원에서도 매년 뇌졸중의 날에 건강공개강좌를 하여 왔는데, 올해는 특히 인천권역 심뇌혈관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인천권역의 모든 대학병원 및 인천시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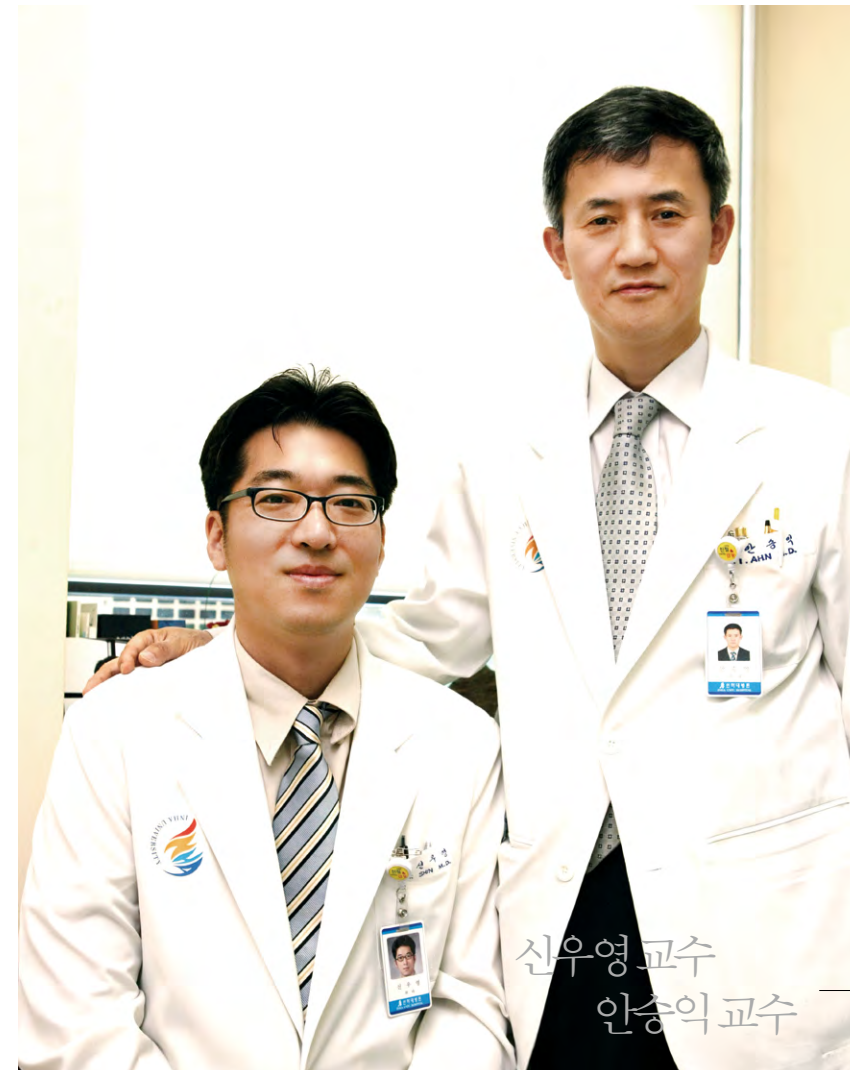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국가적 뇌졸중 관련 대책 및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성과는 어떨까 궁금해지는데, 다행히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3년 OECD 보건자료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뇌졸중 분야에서 한 달 사망률이 제일 낮아서 1위를 하였습니다. 즉, 병원 내의 뇌졸중 진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뇌졸중 사망률도 이에 따라 감소 추세여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뇌졸중은 최근에 단일질환 사망원인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생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후유장애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예방 홍보사업이나 응급의료전달체계 등에 개선할 여지가 많아,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니 필자는 능력도 부치고 원했던 바도 아니었는데, 뇌졸중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틈엔가 이런 모든 사업의 한가운데 인하대병원과 함께 서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면, 더 힘을 내서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해야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병원에는 필자 말고도 열심히 뇌졸중을 진료하는 젊은 선생님들과 전공의, 간호사들, 그리고 심뇌혈관센터가 있기에 언젠가는 마음 편히 이런 짐들을 내려 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 문의 : 뇌혈관센터 (신경과 ☎ 032-890-3860, 신경외과 ☎ 032-890-2370)

현재도 진행중인 간이식의 모든 것

간이식은 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인의 간을 수술적으로 적출하여, 대상 환자의 체내에 옮겨 붙여 간이 기능하게끔 하는 수술법입니다. 역사적으로 1963년 미국의 스타즐(Thomas Starzl)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대학교의 김수태 교수팀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간이식은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관련 내용이 해마다 변하고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간이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글 신우영 / 인하의대 외과학교실)



인하의대 외과학교실



간이식의 대상 질환 및 금기증

간이식의 대상 질환은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간이식의 대상 질환과 대표적인 간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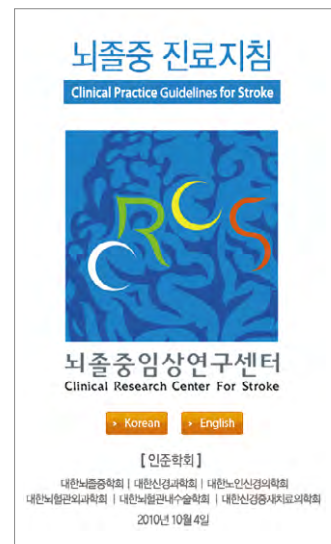
- 중증의 만성 간질환 : 바이러스성 간경변증, 담즙 정체성 간경변증, 버드-키아리 증후군 등
- 간의 종양 : 간세포암, 간모세포종 등
- 전격성 간부전 : 독성 간염, A형 간염, 급성 윌슨병 등
- 대사성 간질환 : 윌슨병, 당원 축적질환 I형과 IV형 등

국내에서의 빈도가 높은 간이식의 대상 질환은 성인에서는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이고, 소아에서는 담도폐쇄증입니다.

성인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의 70~80%가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점차 알코올성 간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외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간부전이 10여년 전 급증을 한 적이 있으나, 이후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식의 금기증은 갈수록 감소 추세로, 일반적으로 간 이외에 발생한 악성

lin6



← 그림 1. 뇌졸중 진료지침 표지

↘ 그림 2. 세계보건기구(WHO) 뇌졸중 포스터



중양, 현재 진행 중인 감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간이식의 종류

간이식을 공여자에 따라 분류를 하면 크게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부분 간이식으로 분류됩니다. 역사적으로 뇌사자의 간을 이용한 간이식이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이식 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생체 간이식은 부족한 장기 기증을 대체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의 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 당 2명에 불과하여 국내 간이식 수술의 약 80%가 생체 간이식이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 기증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심장사 장기기증을 점차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그 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간이식의 시점

간이식은 매우 큰 수술입니다. 따라서 수술 결과에 대한 걱정, 비용 문제에 대한 걱정, 공여자에 대한 걱정으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간질환으로 기대 여명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간이식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간이식에 의한 수술 사망률은 3% 미만으로 일반 수술과 차이가 없고, 이식 전 상태가 좋을수록 이식 후 경과가 좋아, 간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식을 준비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는 간세포암이 한몫을 했는데, 과거 정상 간기능의 간세포암 환자에게 간이식을 하면 과잉치료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초기 간암의 가장 좋은 치료로 간이식이 인정받고 있어, 정상 간기능을 가진 간세포암 환자에서 간이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여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현행 국가 정책상 뇌사 공여 간은 위중한 환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간기능이 어지간히 나쁘지 않은 한 차례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상태가 위중해져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도

합병증으로 수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의 시점은 환자 개개인의 병증 및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 간기능의 간경변증 환자에서 정맥류나 복수 등 문맥압 항진증이 있는 경우, 황달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우선 간이식에 대해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간이식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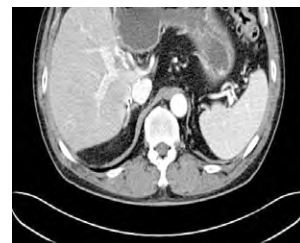
간단하게 설명하면, 뇌사 공여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전체 간을 적출하고, 생체 공여자의 경우 통상 오른쪽 간을 적출합니다. 적출된 간을 저온의 보존액을 이용해 혈액을 제거하고, 저온 보관함과 동시에 수혜자의 병든 간을 제거하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원래 간이 있던 자리에 공여자의 간을 위치시킨 후, 수혜자와 공여 간의 간정맥, 간문맥, 간동맥, 담도를 순서대로 다시 연결하여 줍니다.

[간경변증 환자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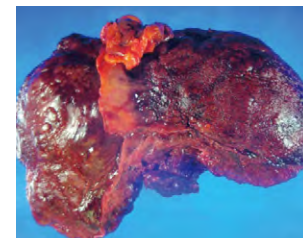
! 이식 전 복부 CT : 간경변증으로 간은 심하게 위축되어 있고, 복수를 동반하고 있다.



! 이식 후 복부 CT : 생체 부분 간이식 후 복수는 소실되었고, 정상 간기능을 보이고 있다



! 적출한 경화된 간



간이식 후의 관리

이식된 간은 '나의 것' 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외부에서 들어온 적으로 간주하여 이식된 간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를 거부반응이라고 하고, 이 경우 이식된 간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우리 몸의 면역을 억제시키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제로 FK-506과 싸이클로스포린,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원발 간질환의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는, 간이식을 받게 된 원인이 이식된 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가장 큰 원인인 B형 간염의 경우, 간이식 후 바이러스가 재발하게 되면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다양한 약제의 개발로 사망 예가 거의 없으나, 2000년 이전만 해도 재발 후 사망률이 50%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간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B형 간염 항체를 주사로 투여받아야 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B형 간염과 달리 만성적인 경과를 보입니다. 이식 후 천히 만성 간염 및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어 이식 후 10 ~ 20년

후 간경변증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페론과 리바비린과 같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합니다. 이외에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 금주 교육이 필요하고, 독성물질에 의한 전격성 간부전이 원인인 경우 해당 물질에 노출 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이식과 관련된 합병증 및 약제에 의한 합병증에 대한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간의 암종으로 이식을 받은 경우, 암의 재발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식은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현재도 발전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과거에 비해 수술적 사망률도 일반 개복수술과 유사한 성적을 보일 정도로 수술법 및 수술 후 관리도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자의 입장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경변증이 있다면, 특히 황달 수치가 오르기 시작하거나, 정맥류 복수 등 문맥압 항진증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우선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문의 : 외과 ☎ 032-890-2250

급성 복통은 응급실 환자들이 흔하게 호소하는 주요 증상 중 하나이다. 응급실로 내원하는 성인 환자 중 복통호소는 전체 환자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급성 복통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글_ 정현민 교수 / 응급의학과)

급성복통

Acute Abdominal Pain



갑자기 배가 아프면?

복통이 경미한 환자도 치명적인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고, 매우 심한 환자에게서도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질환의 중증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성 복통의 흔한 원인으로 비특이적 복통이 30% 이상으로 가장 흔하며, 그 외 충수염, 담도 질환, 장폐쇄, 급성 부인과 질환, 췌장염, 신성복증, 소화성 궤양 천공, 악성종양, 게실염 등이 있다.

같거나 비슷한 양상의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증상에 따라 처방과 처치가 달라지므로, 의료진에게 증상을 잘 설명하고 진찰에 협조하여 원인에 따른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통의 위치

복통 위치에 따른 표준적인 4구분 방식은 우상부, 좌상부, 우하부, 좌하부의 구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 상복부, 하복부, 중심부(또는 배꼽주위), 미만성(generalized)으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

복통의 진단

복통 환자 진료에서 자세한 병력과 충분한 진찰은 필수적이다. 먼저 기본적인 복통의 특성으로 위치, 양상, 정도, 시작 시간, 지속시간, 악화 또는 완화 요인,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파악한다. 복통의 연관 증상 및 병력으로는 소화기계(식욕부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비뇨생식기(배뇨 곤란, 빈뇨, 긴박뇨, 혈뇨, 잔뇨감 등), 부인과 계통(생리, 성교 유무, 임신여부,

성생활, 성병, 질 분비물, 성교통, 산과력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소화기계 연관 증상은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으며, 부인과적 원인의 복통은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므로 철저한 병력 청취가 필요하다. 급성 복통 환자의 적절한 배치(disposition)와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단지 임상적인 소견과 기본 검사만을 가지고 적절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힘든 일이며, 진단적 정확도는 50~6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복통을 호소하는 성인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오진율이 증가하므로 주위를 요구한다.

질환 별 복통의 특성

1) 위염

① 급성 위염은 폭음, 폭식 특히 지방성 음식의 과식, 특정 식

품에 대한 알레르기, 알코올, 흡연, 아스피린과 같은 약제 등의 이유로 발생하며, 상부 복통과 토사, 구토, 하품, 식욕부진, 발열을 유발한다.

② 만성위염은 노화에 따른 위 점막의 위축이 주된 원인으로 추측된다. 암이나 궤양 같은 기질적 손상으로 발전되는 수도 있으며 폐결핵이나 신장염과도 관련이 있다. 외인성 인자로는 알코올, 담배의 니코틴, 향신료, 약제 혹은 음식을 잘 씹어 삼기지 않는 습관 등이며, 내인성 인자로는 여러 가지 정신적 혹은 심리적 인자, 위점막의 혈액 순환장애 등에 의한 영양장애 등이 있다.

2) **급성충수염** : 응급실로 내원하는 복통 환자 중 충수돌기염의 유병률은 대략 10~25% 정도이며, 이들 중 약 20% 정도에서 오진이 된다. 우하복부 통증, 배꼽 주위에서 우하복부로의 통증 이동, 복부 강직, 통증 전 구토, psoas 징후 양성 등 임상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방사선학적 진단 방법으로는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할 수 있다.

3) **담도계 질환** : 담석증, 급성 담낭염 등이 있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5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복통의 원인이다.

① 담석증 : 담석 또는 쓸개 돌은 담낭에 콜레스테롤, 담즙 색소, 칼슘염 등의 결정체와 약간의 단백질 성분이 엉킨 것이며 콜레스테롤로 인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담석이 생기는 것을 담석증(cholelithiasis)이라 칭하며, 간과 담낭의 질환으로 염증 및 물질의 정체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담낭결석, 총 담관 결석, 간 내 담석 등으로도 불리며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난다. 담석증은 무증상에서 심하면 염증을 일으켜 담낭염을 초래하기도 하며, 담석이 담관을 막게 되면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담즙의 분비를 방해하여 지방의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담석은 저절로 제거되기도 하나 대부분 수술이 필요로하며, 이 경우 담낭도 함께 제거할 수 있다.

② 급성 담낭염 : 우상 복부의 심한 압통을 동반한 담낭의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우상 복부의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12~18시간 사이에 증상이 소실되기도 한다. 주요 원인은 담석에 의하여 담낭관이 막힌 경우에 발생하며(80~95%), 또는 심한 외상 환자나 예전의 수술 과거력 환자에게 결석 유무에 관계 없이 발생할 수 있다.

4) **췌장염** : 췌장염은 췌장효소(주로 트립신)에 의해 췌장 분

비샘의 파괴 및 췌장에 전반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췌장염은 급성과 만성 췌장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급성 췌장염은 췌장의 염증이 생기나 회복 후 정상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이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의 염증이 계속 반복되어 췌장의 외분비 및 내분비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췌장염의 흔한 원인은 담석과 알코올이다. 췌장염의 주증상은 통증인데 췌장의 염증으로 인해 췌장의 부종과 섬유화는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요통, 복부 통증 및 압통을 일으킨다. 통증은 명치나, 몸의 왼쪽에서 주로 나타나며, 때로는 등과 가슴, 혹은 옆구리 등으로 통증이 반사되기도 한다. 통증 발생 후 점점 강도가 높게 지속되며 심한 경우 구토가 발생하기도 하며 구토를 하여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 특히 췌장은 등쪽에 있는 장기이므로 통증은 누우면 심해지고, 다리를 모으고 구부린 자세에서 완화되는 특징이 있다.

5) **소장폐쇄** : 이전의 복부 수술, 이따금 콧속 쑤시는 듯한 통증, 진찰 소견 중 복부팽만, 비정상적인 장음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6) **게실염** : 동통은 하복부 또는 좌하부에 한정되고 임상적 진단의 정확성은 약 30%로 매우 낮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7) **신산통(renal colic)** : 주로 갑자기 시작되는 편측 옆구리증이 특징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혜부 방향으로 통증이 퍼질 수 있다. 혈뇨는 일반적으로 검사실 소견에서만 보입니다.

8) **골반염** : 자궁, 난관, 난소, 복막 및 인접 조직 등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하며 보통의 경우 하부 성기에 침입한 각종 세균이 상향 이동해 발생하는 속발성 질환이다. 대부분의 경우 난관염에서부터 시작되며 2차적으로 난소와 골반 복막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많은 예외는 있으나 일반 경향은 급성으로 시작하여 완전히 치료되거나 혹은 계속적으로 재발되는 만성 과정으로 이행한다. 많은 경우에 골반과 하복부에 심한 통증, 근육 경직을 보이며 더 광범위한 경우에는 복부 팽만, 오심과 구토,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대부분의 경우 생리 기간 혹은 생리 직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문의 : 응급의학과 ☎ 032-890-2301



응원은 심장이 시키는 일이다!

붉은악마 회장
반우용



건강과 젊음을 위해 쏟아붓는 돈과 시간, 노력. 하지만 한 가지에 '미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열정과 활기는 어떠한 영양제나 시술에 비할 것이 아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전 국민의 축제 월드컵. 수만 명의 붉은 악마들을 이끌고 당당히 13번째 선수로 뛰는 반우용 붉은악마 회장. 그는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 삶에 미치는 긍정 효과를 믿는다. (글 김은성 자유기고가 사진 노희영)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슬픔, 붉은악마도 같은 마음

한국 대 튀니지 축구 평가전. 16분 동안 고요히 침묵응원하다!

지난 5월 한국 대 튀니지 축구평가전. 붉은 악마는 16분 동안 고요히 침묵했다. 세월호에서 건져 내지 못한 열여섯 명의 영혼을 위무하는 의식이었다.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평안을 바라는 염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침몰했어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우울하고 괴로웠죠. 그들을 절대 잊지 않되, 반드시 극복하자는 의미로 침묵응원을 준비했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공개되는 사진 속의 그는 늘 활력 넘친다. 그 뒷면에는 언제나 ‘최선’을 고민하는 신중한 시간이 놓여있다. 대한민국 대표팀과 붉은 악마 응원단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반우용은 종일 생각이 많다. 붉은 악마 응원단이 초심과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되 누구에게도 폐가 되지 않을 방식. 키움에셋 플래너로 활동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일상과 응원단장으로서의 열정이 조화롭기를 늘 궁리한다.

또래 친구들은 그를 보며 ‘대단하다’고 감탄한다. 마흔 초반이면 부쩍 피로하고 체력이 달린다. 두터워지는 허리둘레 걱정에 달고살던 술담배와도 이별을 고한다. 그런데 이십대 젊은이들과 더불어 90분 동안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응원을 하는 40대라니!

게다가 붉은악마 응원단은 4년에 한 번씩은 보름 가량의 휴가를 내어 먼 나라로 응원 원정길에 오른다. 월드컵 전이면 ‘대의 협력팀’을 구성해 응원복, 응원가, 응원 장소 등을 결정해야 한다. 서포터 기업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며, 이번처럼 국가의 비상사태로 월드컵 응원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울 때면 지자체 공무원들과 끊임없이 대화도 해야 한다. 카드섹션 응원이라도 할라치면, 엄청난 수의 좌석에 한 장, 한 장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생업을 유지하며 붉은 악마 회장으로 활동하기란, 가히 ‘연예인 스케줄’ 이랄까.

“하하. 무리가 아니라면 거짓말이겠죠. 4년에 한 번이니 망정이지, 매년이면 회사 못 다닐 거예요. 특별한 자기관리 비결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주어진 여건과 시간에 최선을 다해요. 심장이 시키는 일이니까, 잠을 줄이고 짬을 내 가며 할 수 있는 거겠죠?”

늘 ‘설렘’으로 사는 붉은악마, 이번에는

축구의 힘이, 응원의 에너지가 ‘국민 위로’가 되길 소망

2002년 월드컵 이후, 붉은악마를 법인으로 키우라는 조언도 꽤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취미로서의 응원, 그 순수한 에너지의 힘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원정 때만 해도 개인 시간은 커녕, 시차적응할 여유도 없이 경기일정에 바빠 움직여야 한다. 할 일은 많고, 규칙은 엄격하며, 몸은 피로한데도 붉은 악마들은 늘 ‘설렘’으로 산다. 순수한 재미, 서로간 우정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기에 오히려 더 단합이 잘 된다. 출국 전날까지 쉴 틈 없이 업무를 해치운 뒤 두근거리며 비행기에 오른다.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은 모두 축구 응원을 통해 인연을 맺었어요. 사회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우정이예요. 축구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서로 아끼죠.”

반우용은 자신의 인생을 바꾼 2002년을 떠올리면 지금도 심장이 ‘쿵쿵’ 뛰다고 했다. 눈감으면 그 시간이 꿈결처럼 흐른다. 살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그 시절의 환희를 생각하면 힘차게 일어나 뭘 것 같다고.

행복이, 그렇다. 평생 행복한 이가 몇이나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했던 찰나’를 속 깊이 보석처럼 묻어두었다가 종종 꺼내본다. 그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반우용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축구의 힘이, 응원의 에너지가 국민들을 위로하기를 소망한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길 바랄 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축구와 응원이 작은 힘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도시가 아름다워 견딜 수 없다는 듯 ...

숲 그늘에 취했다. 유장한 곡선미에 반했고, 끝내는 야경에 홀렸다. 홀로 걸터앉았던 성벽의 안부가 궁금했고, 겨울밤에 훑날리던 눈발이 그리웠다. 그래서 다시 찾은 길이다, 초여름의 한양도성 길. 어느새 계절은 변해 성곽 길엔 초록이 무성하고, 여름 냄새가 짙다. 바람이 적은 날 밤에는 붉은 장미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성벽도 탄다. 바람마저 달콤해져 한층 사랑스러워진 초여름의 성곽. 그곳에서 본 도시 서울의 풍경은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자꾸 생각나는..., 깊은 중독이었다.

(글/사진_ 이시목 여행작가)

서울 자연생태의 축이자 역사의 숨결이 담긴 곳

어쩌면 서울에 이런 풍경이 있었을까. 생전 처음 보는 서울 인양 풍경이 생경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양도성은 지난 2007년, 북악산 코스가 공개되면서 비로소 '성 돌이 를 할 수 있는 산책길로 완성됐다. 그래서 아직 아는 이 드물다. 물론 일부 구간이 도로며 건물로 끊어져, 부분적으로 성곽을 벗어나 걸지만 그래도 감지덕지하다. 서울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벅선발로 반길 참. 아니, 반가움이 지나쳐 많은 사람들이 성곽과 사랑에 빠질 태세다.

한양도성(사적 제10호)은 이름 그대로 서울의 4대문을 잇는 옛 한양의 도성이다. 조선 개국 뒤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석조성곽으로,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주산으로 인왕산, 남산, 낙산을 잇는다. 서울을 감싸고 있는 외서산과 내서산 두 겹의 산 중, 안쪽에 있는 내서산의 정상을 이으며 서울을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것. 둘레는 18.2km에 달한다. 하지만 일제 침략과 한국전쟁, 도시계획을 거치며 성곽은 듚성듬성 이가 빠졌고, 나머지 성곽(평지에 있던 성곽들은 대부분 헐렸고 지금은 산지 성곽만 10.5km 남아 있는 상태)들만 들머지기 상태로 방치 되길 오래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6년 봄 무렵부터 정비되기 시작했다. 먼저 북악산의 흥린사부터 숙정문, 훗대바위에 이르는 1.1km 구간이 정비됐고, 2007년 4월에는 와룡공원부터 숙정문, 백악마루, 청운대에 이르는 4.3km 구간이 정비됐다. 이로써 성곽 산책로, 이른바 한양도성 순례길이 완성됐다. 성곽 안팎으로 난 산책로의 길이는 약 23km. 거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산을 4개 넘으면서 10시간 정도를 빠듯하게 걸어야 하는 '하드 코어 산책길'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4구간을 끊어 걷는다.

1구간은 복원 중인 승례문을 시작으로 남산 ~ 남소문 터 ~ 장충체육관으로 이어지는 길(6km, 4시간 소요)이고, 2구간은 장충체육관에서 광희문 ~ 흥인지문 ~ 낙산 ~ 혜화문까지 가는 약 5.5km(3시간)의 길이다. 3구간은 혜화문에서 와룡공원 ~ 말바위쉼터 ~ 숙정문 ~ 창의문까지 약 5.5km(3시간) 거리. 마지막 4구간은 창의문에서 인왕산 ~ 돈의문 터 ~ 정동길 ~ 승례문으로 이어지는 약 6km(4시간) 길이다. 이중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한양도성을 보려면 북악산과 인왕산, 그 중에서도 '북악하늘길'이라 불리는 북악산 구간을 찾는 것이 좋다. 산행에 가깝지만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핵심구간이다. 이에 비해 낙산 구간은 흥인지문에서 혜화문까지 길게 성곽이 남아있고, 북악산 길에 비해 길도

수월한 편. 남산 구간은 성곽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 지도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구간 구분 없이 성곽 모두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자연생태의 축이자 역사의 숨결이 담긴 곳이어서 느긋하게 거닐 만하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낯선 서울을 만나는 일이란

성곽 길 산책의 처음은 2구간으로 연다. 위밍업 차원이기도 하고, 낙산 구간의 풍경이 각별한 때문이기도 하다. 낙산은 서울의 형국을 구성하던 내사산(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의 하나로, 주산인 북악산의 좌청룡에 해당한다. 산의 모양이 낙타의 등처럼 볼록하게 솟아 낙산이라 불렀는데, 그 볼록한 등허리로 성곽이 길게 이어졌다. 이리 휘고 저리 굽은 양이 마치 승천을 준비하는 용인 듯하다. 그 용의 등을 타고 앉아 바라보는 도시, 그 풍경이 어쩐지 낯설다. 먼저 대학로로 길을 잡자. 홍인지문이 있는 동대문 일대를 기점으로 삼아도 좋지만, 서울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 이화동 벽화골목을 경유해 낙산으로 오르자. 모름지기 성곽여행이란 고색창연한 역사의 향취와 함께 우리네 이웃의 삶터를 만나는 여정. 성곽 주변으로 이화동의 오래된 주택들이 지붕을 잇대고 들어앉았다. 이곳에 지난 2006년 공공낙산프로젝트가 시행되며 알록달록 예술이 내려앉은 것. 이를 계기로 충신동과 이화동에 모여 있던 오래된 봉제공장들은 작가들이 만들어준 새 간판을 얻었고, 동네는 사철 꽃이 피고 새가 날아오르는 미술관이 되었다. 벽화야 그렇다 치고, 골목길의 풍경도 놀랍다. 전깃줄 수백 가닥이 얽혀 이뤄내는 풍경이 독특하다. 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21세기인지 알 수 없을 풍경. 어쩌면 이 낡은 동네에 성곽 이후 서울의 어제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도시가 걸어온 역사의 나이트가 짓고 부수고 다시 짓고 부수는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남아 있어 주어 고마운 풍경이다.

낙산에 간다는 건 도시를 보러 가는 길이기도 하다. 낙산 꼭대기에 올라 성곽에 잠깐 걸터앉아 보시라. 이렇게 시원하고 아름다운 전망을 어디에서 또 볼 수 있을까. 낙산이 유독 <파리의 연인>이나 <사랑한다 말해줘> 같은 드라마에 자주 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빼어난 전망 덕분이다. 비교적 높은 곳에 오르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비싼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와 같은 서울의 도심을 조망할 수 있다. 서울 성곽과 함



이화동 일대의 벽화골목을 상징하는 꽃계단과 벽화들



올해 봄은 유난히 빨라 산벚꽃이 4월 초순에 만개했다.

게 사대문 안 빌딩 숲이 어울려 빚어내는 풍치라니, 도심 안에서는 볼 수 없던 낯선 서울의 풍경이다. 특히 달밤의 정취는 백만 불짜리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땅에서 발현한 듯, 그 빛이 휘황해 쉬이 잊히질 않는다. 미처 알지 못했던 도시의 풍경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도시의 무언가가 문득 그리워지는 순간이 올 테다. 그땐 주저 말고 낙산의 성곽에 올라 보시라. 빌딩 숲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아버 같은 모습의 성곽에 반할 테니 말이다. 500년 역사의 성곽에 앉아, 도시를 지키는 성곽의 품을 오래 오래 바라보아도 좋을 일이다.

Travel TIP_

코스 팁 >>>

낙산이나 인왕산, 남산이 24시간 개방되는 것에 비해 북악산 구간 일부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탐방시간이 정해져 있다. 3월에서 10월까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11월에서 2월까지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문이 허용된다. 창의문안내소(02-730-9924)와 말바위안내소(02-765-0297), 숙정문(02-747-2152)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적은 뒤 패찰을 받아 움직여야 하며, 여전히 군사시설이 남아 있어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월요일은 휴무며,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11월에는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에 말바위와 창의문 안내소에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ww.bukak.or.kr)

가는 길 >>>

낙산공원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가 기점이다. 방송통신대와 마로니에공원 사이 골목길로 올라가면 쇠대박물관이 보이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걷다 갈림길이 나오면 다시 오른쪽 오르막길을 탄다. 파출소에서 오른쪽 길(낙산공원 방향)로 계속 올라가면 되는데, 공원 못 미친 지점에서 하나 둘 벽화가 보인다.

먹을 곳 >>>

예전 성곽 주위에 있던 낙산냉면, 깃대봉냉면 등 냉면집들은 이전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대학로 또한 맛있는 집이 많은 곳. 아기자기한 느낌의 맛집을 원한다면 골동면(02-764-5113)을 찾아볼 것. 골동면, 김치말이국수 등이 주 메뉴다. 바지락칼국수며 얼큰김치칼국수가 맛있는 국수가(02-3673-5798)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월드컵 사상 최다 우승 국가인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지구촌 축제인 2014 브라질 월드컵이 6월 13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 달 간 세계를 뜨거운 축제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본다.

(에디터_임현숙)

재미있는 월드컵 이야기

이번 20번째 브라질 월드컵의 마스코트인 풀레코(Fuleco)는 축구(futebol)와 생태환경(ecologia)의 합성어로 브라질에서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 아르마딜로인 '브라질세피아르마딜로'를 형상화한 것이다. 특히 풀레코의 파란색 등딱지는 브라질의 하늘과 깨끗한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world cup pitch의 초록색과 대비되는 색깔이다. 이번 대회에 공인구인 브라주카는 아디다스가 만들었고 100만 명의 축구 팬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브라질 사람을 뜻하는 포르투갈어로 브라주카라는 단어는 브라질 특유의 삶을 표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리본을 형상화하는 색깔과 6개의 대칭 패널 디자인은 브라질 전통의 소원 팔찌를 상징하는 것으로 축구를 사랑하고 즐기는 브라질 사람들의 열정을 표현한다.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브라주카는 어떤 공인구보다 많은 테스트를 거친 후에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등번호의 비밀

축구의 등번호는 1924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고, 19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 사용되었다. 등번호는 해당 선수의 포지션과 스

타일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FIFA는 각국의 월드컵 최종 엔트리 23명이 반드시 1번에서 23번 중에서 등번호를 달도록 규정한다. 1번은 무조건 골키퍼의 몫이라는 의무 사항이 있지만 그 외 등번호 배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각국의 대표팀은 선수의 포지션과 역할, 특징에 따라 관례적으로 특정 번호를 배정하며 개인의 희망도 반영된다. 2번 ~ 5번은 수비수, 6번 ~ 8번은 미드필더, 9번 ~ 11번이 공격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홍명보호의 경우 다양한 번호로 분포되었지만 세계 정상급 팀들은 대체로 1번부터 11번 사이의 등번호를 가진 선수가 주전인 경우가 많다. 수비수나 미드필더는 6번, 돌파력이 뛰어난 측면 공격수에게는 7번, 중앙 미드필더는 8번, 최전방의 정통 스트라이커는 9번, 스피드를 갖춘 테크니션은 11번을 주로 달고 있다. 가장 유명한 백넘버라고 할 수 있는 10번은 펠레(브라질)가 3번의 월드컵 우승을 획득하며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 마테우스(독일), 지단(프랑스) 등의 축구 영웅들이 10번의 영광을 계승하면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의 가장 유명한 10번은 역시 아르헨티나의 리

오넬 메시와 그의 라이벌인 개최국 브라질의 네이마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각국의 스타 공격수들인 호날두(포르투갈), 리베리(프랑스), 산체스(칠레) 등이 7번을 새기고 뛰면서 7번은 새롭게 주목받는 번호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7번을 달고 맹활약했던 '캡틴 박지성'이 은퇴하면서 그의 번호를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이 컸는데 주인공은 '제 2의 박지성' 김보경이 되었다. 해외나 국내의 팬들 모두에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큰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언급되고 있는 손흥민은 스트라이커의 번호인 9번을 받았는데 9번은 정통 스트라이커들이 다는 번호로 월드컵 통산 최다골(15골)의 기록을 가지고있는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9번을 달고 3회의 월드컵을 뛰었으며, 우루과이의 수아레스와 곤살로, 아르헨티나의 이과인이 이번 월드컵에서 9번을 달고 뛰는 선수이다. 또 다른 스트라이커 박주영은 에이스의 상징인 10번을 달고 뛰게 되었고, 기성용과 이청용은 남아공 월드컵 때 사용한 16번과 17번을 나란히 받았다.

재미있는 징크스들

승부의 세계인 스포츠계에선 징크스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연한 일치처럼 오랫동안 굳어지면서 월드컵의 팬들에게 재미와 기대를 준다.

징크스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펠레의 저주'이다. 매년 월드컵에서 우승국을 지목하는 펠레는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하는 우승 후보 예상마다 빗나가면서 '문어 파울'보다도 못한 펠레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다. 독일의 점쟁이 문어인 파울은 점쟁이 문어, 예언가 문어, 족집게 문어로 불리며 우승 후보 국가에서 밀린 팬들의 살해 협박과 저주에 시달렸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파울은 결승전에선 스페인의 승리를, 3·4위전에서는 독일의 승리를 예언했고, 방송시는 이를 생중계 했으며 그의 예측은 모두 맞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각종 징크스가 깨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개최국은 16강에 진출한다.'는 징크스는 남아공이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깨졌고, '유럽 국가들은 유럽 대륙에서 하는 월드컵에서만 승리한다.'는 징

크스는 유럽 팀인 스페인과 독일이 결승에서 격돌하면서 깨졌다. '대회 4강전에 오른 국가들은 다음 대회에서 반드시 한 팀은 본선에 오르지 못한다.'는 징크스와 '유럽과 남미가 징검다리 식으로 우승한다.'는 징크스도 1962년 칠레 월드컵 이후 48년 만에 깨졌는데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유럽 팀인 이탈리아가 우승을 한 데 이어 2010년 역시 유럽의 스페인이 우승을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징크스도 있다.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우승한 팀은 이듬해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이 없다.'는 징크스다. 2001년 우승팀 프랑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2005년 우승팀 독일은 2006년 4강에, 2009년 우승팀 브라질은 2010년 8강에 머물러야 했다. 2013년 우승팀인 브라질은 이번 월드컵에서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잉글랜드는 월드컵에서만 세 차례 승부차기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잉글랜드의 호지슨 감독은 심리 치료사까지 기용했다는 후문인데 과연 승부차기에 징크스를 넘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징크스는 일명 '퐁당퐁당 징크스'. 한 대회에서 잘하면 그다음 대회에서는 죽을 쏜다는 것이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잘했으나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허무한 3전 전패, 1994년 미국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첫 경기에서 역전패, 2차전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는 0대5로 대패하면서 대회 도중 차범근 감독 경질이라는 소동을 일으켰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만들어낸 한국은 2006년 독일에선 16강 진출 실패, 2010년 남아공에선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남겼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지난번만 한 성적을 내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브라질의 12개 개최 도시에서는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약 한 달간을 휴일로 정했다고 한다. 이외 도시에서도 브라질전이 있는 날은 휴교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소식이다.

그만큼 뜨거운 월드컵! 우리도 즐겨라, 대한민국(Enjoy it, Reds!)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 공적 사회공헌 통한 나눔문화 실천

인하대병원의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은 인간존중과 공존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문화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미션 아래 송준호 교수(신장내과)를 단장으로 2014년 3월 1일 발족했다.

(글_ 김시현 /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병원건립이념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
병원경영철학 “나눔 문화 실천”



“직원 여러분 모두가 공적사회공헌의 주체적인 리더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 수 5.9%, 병상 수는 10.4%로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의료자원이 매우 궁핍했다. 따라서 2013.2월 공공보건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보건의료의 범위가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환경에서 인하대병원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지원, 교육, 봉사부문을 통합 및 보강해 공공의료의 질적, 양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공적 사회공헌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봉사, 국내·외 의료지원, 민·관협력사업 등이 있다. 지역사회봉사는 공개강좌 및 교육 그리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의료사회복지 사업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는 보육, 미혼모, 양로원, 장애인 시설, 노숙자쉼터 및 환경개선 활동 등에서 13개의 봉사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료사회복지 활동은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이 2013년에 약 200여 명에게 지원이 되었고 무료간병,

미술치료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의료봉사는 지역 사회 행사 및 긴급의료지원 그리고 우간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이 있다.

해외의료봉사는 1997년 몽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회가량 진행되었으며 도움을 준 환자 수도 3만 명을 넘는다. 또한 민·관협력 사업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증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및 정신건강 지원, 감염·결핵·생물테러 관리 사업 등 다양한 지역 보건사업이 있다. KOFIH와 함께하는 해외의사 연수사업(이종욱펠로우십)은 2008년도를 시작으로 2013년도까지 8개국(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에티오피아) 총 81명의 의료진 연수생을 배출했다.

2014년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학생(중고등학생)봉사단 운영이다. 학생봉사단 운영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나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병원의 나눔 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주도적인 나눔 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에서는 기존에 실천하던 모든 활동을 유지하면서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세상,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을 인하대병원의 모두와 나누고 싶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 돼요!

'14. 8.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법령 근거 없는 경우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는 '16. 8. 6일까지 파기해야 합니다.

Q.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는 사용 가능한가요?

A.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의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시 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열입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숫자열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주민등록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Q. 14세 미만 아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에 대한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으며, 휴대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조항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콜센터 상담시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

A. 해당 통화 상대방이 고객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과의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 있으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고 법적 근거 또한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가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기타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Q.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본인확인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에는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원 : 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누구보다도 진료 서비스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김단 탐병원'은 개원 3년 만에 대단위 증축과 꿈의 암 진단기로 알려진 핵의학 장비 PET-C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를 지역 최초로 도입하였다. 또한, 올해는 128채널 CT 도입 등 지역 내 최고의 장비와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급의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진료 서비스 향상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준섭 병원장 조인철 응급센터장 한기수 신경외과 과장

→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김단탐병원



김단탐병원 이준섭 병원장은 인천 서구 주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병원이 되겠다는 취지로 2009년 진료를 시작했다. 또한, 이 원장의 마음드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큰 의미를 두고 의료 봉사활동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 병원 문을 개방했다는 점이 다른 병원과는 사뭇 다르다. 개원 이래 '사랑 더하기'라는 이름의 의료 봉사활동은 매월 1회 이상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무료 인공 관절 수술부터 생활용품과 장학금 전달까지 넓고 다양하다. 또 올해 김단 신도시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끈 병원 내 '인체 탐험 ZONE'은 아이들이 인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음식물의 소화 과정과 인체 주요 기능을 그림 영상으로 보여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ZON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5년 3월까지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지역의 새로운 인기 장소로 떠올랐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Hot-Line

탐병원 의료진은 인하대병원의 의료진과 직접 연결을 한다는 점에서 Hot-Line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 신경외과 한기수 과장은 "저희 과는 어느 분야보다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이고 응급뿐 아니라 입원 중의 어떤 상황에서도 빠른 조치는 환자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죠." 이를 담당 교수진과 직접 전화 연결로 세세한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Hot-Line의 가장 돋보이는 점이라고 말한다. 한 과장은 응급 센터에 내원한 59세의 여자 환자가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어 혈전약을 투입하고 혈관 조형술 및 혈관 내 시술이 필요해 인하대병원의 Hot-Line을 통해 전원할 수 있었다. 응급 센터 조인철 센터장은 인하대병원의 Hot-Line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사 간 의기투합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 변화였다고 말한다.

조 센터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방문한 응급 센터에서 Hot-Line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가슴 통증이 있어 119에 실려온 17세 남학생이 CT상으로 중격동기흉 소견을 보였지만 기침이나 외상, 구토가 없었다고 하여 인하대병원으로 전원 되는 현상이었다. 또 최근 CT상 비장 파열 또는 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를 인하대병원 혈관 외과 교수와 통화 1분만으로 전원했던 사례도 전한다. 레지던트 과정을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한 조인철 센터장은 누구보다도 제 역할을 하는 Hot-Line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고 한다.

"인하대병원의 Hot-Line의 구축은 단순명료하지만, 실질적이면서 기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전화를 받아주는 선생님들의 희생(?)에 고마울 뿐입니다." 2차 병원이 겪는 어려운 점을 Hot-Line 구축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탐병원과 인하대병원 은 동반자로서 오랫동안 그 길을 함께 하리라 생각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032-590-0114

Change the INHA

환자안전은 세계적인 이슈사항이며, 인하대병원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국제의료기관인증(JCI인증) 획득으로 체계적인 환자 안전문화 정착을 실천하는 인하대병원 교직원들의 의지를 'Change the INHA' 시리즈 네 번째로 낙상 관리를 소개합니다. (글_ 신정애 / CS | Q팀)

落傷



더 안전하게~!! 낙상 발생 'Zero'에 도전 한다

입원 시 낙상 예방 수칙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환자 수칙'을 환자와 보호자께서 잘 숙지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은 의료진의 노력 못지 않게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의료 안전은 환자와 병원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인하대병원은 늘 환자와 의료진이 소통하면서 함께 안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JCI 인증과 국내의료기관인증 획득으로 이룬 안전한 진료시스템 가동으로 모든 환자분이 신뢰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의 낙상 예방 안전절차
국제의료기관(JCI)인증으로 구축한 안전한 시스템 실천의 핵심은 국제 환자 안전목표 준수로 그 여섯 번째 목표가 바로 낙상 예방 및 낙상으로 인한 위험 줄이기입니다.

* 치료를 위해 어머니의 입원을 준비하고 있는 김 여사, 그의 고민은?

병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낙상 사고' 라고 하던데요?
어머니가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셔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집에서는 온돌방에서 생활하시는데 병실에는 침대방만 있고 온돌방이 없어서 혹시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지는 않으실지, 침대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 디더 넘어지지는 않으실지.....

* Solution !!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낙상 예방 안전절차

걱정 마세요,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신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인하대병원은 낙상 예방 관리를 위한 안전절차를 수립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제환자안전목표 6번째인 낙상 예방을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낙상 위험평가를 시행하여 환자분들 개별 요구에 적합한 예방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Speak Up!!!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입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낙상 위험 평가를 시행하여 낙상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팔찌에는 낙상 고위험군 표식으로 빨강 스티커를 부착하여, 환자분이 검사를 가시거나 이동을 하셔도 언제든지 의료진들이 낙상에 대해 인지하고 발생이 안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낙상이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뼈와 근육 즉, 근골격계에 상처를 입는 사고를 말합니다.

낙상 사고는 주로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자주 낙상 사고를 당하여 해마다 발생률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낙상이 발생하면 타박상, 골절,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입원기간 연장이나 진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분을 대상으로 입원 시부터 낙상 위험 평가를 시행하여,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표식을 하고, 병실에도 낙상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여 환자 및 보호자와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의 환자인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낙상 위험이 매우 높아 낙상 예방을 위해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낙상의 원인, 낙상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낙상 발생 시 처리 방법 등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낙상 예방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통해 세심하게 환자를 관찰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래나 검사실에서도 전 직원이 낙상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한 환경을 위해 바닥에 물이 흐르지 않게 주의하고, 병실이나 복도에는 전깃줄이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환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활동뿐 아니라 철저한 관리에도 안타깝게 낙상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환자 수칙 - 나를 지켜주는 낙상 예방 수칙

 운동화를 신고 보호자와 함께	 거동이 불편할 땐 보호자와 동행하기	 슬리퍼 신지 않기 뛰지 않기
 수면 시, 휴식 시 난간 올리기	낙상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환자안전사고입니다	 침상 난간 내리지 않기
 엉덩이는 깊숙이 보호자와 함께	 미끄러운 바닥과 물기 주의하기	 사용 전 잠금 장치 확인

**안전수칙준수로
낙상을 예방해요~~!!**

인하대병원 영화동호회

환자, 지역주민과 함께 아련한 영화의 추억 속으로

영화 보는 것이 좋고, 영화가 그저 좋아서 잠깐씩 들러 DVD 빌려 가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 영화감상을 토론하고 좋은 영화를 서로 소개하며 일상의 심터를 마련하였던 시간이 정말 시나브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글_ 서정민 / 영화동호회 총무)



그동안 다양한 영화로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입원한 환자에게 마음의 힐링 시간을 드리기위해 3층 강당에서 영화상영을 하였으며, 건강관리 서비스와 접목한 지역사회주민과 함께하는 영화 TIME은 지금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조연도 되는 여러 장르의 영화를 혼자보다 공유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보다 인천 보육원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주 토요일 따뜻한 영화와 간식, 음료를 준비하여 5년여 동안 함께 하다 현재는 "항진원"친구들과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시간을 교직원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으로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출신 개그맨(갯벌회)과 인천요식업협회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연 1회 보육원 친구들과 낮에는 즐거운 체육대회와 맛있는 식사 저녁엔 영화상영으로 별이 총총한 초여름 밤을 함께 하였습니다. 때론 아련한 흑백영화로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여름날 무서운 호러영화로 오싹함을 느껴보았으며, 노란 은행잎에 누워 행복해지는 주인공들처럼 첫사랑도 생각해봤던 시간들.....

이 모든 좋은 추억과 함께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인하대병원 영화동호회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아름다운 사랑과 마음, 사람으로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말벗 도우미 삶의 질 향상과 여생의 따뜻한 위로

말벗 도우미 서비스는 인천시 중구 관내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말벗 도우미 서비스 및 건강 상담, 건강 체크(혈압, 혈당 체크)를 시행하는 봉사활동입니다. (글_ 조선신 / 동15병동 수간호사)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613만 8천 명/2013년 10월 기준) 중 "슬픔과 절망을 느낀다."라는 노인의 수는 전체 노인 인구의 15% (92만 명)에 달하고 최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2주 이상 연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노인 우울증 증상이 15.5%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노년의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노인 우울의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신체질환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로부터 소외에 인한 외로움 등이 있습니다.

말벗 도우미 서비스는 노인의 우울 진단 및 자살 위험성 평가를 하여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갖고 있으며 간호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질병 상담은 물론 정서적인 지지 등 복합적인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높은 대학병원 인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보건소 방문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Q.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2013년 3월 인천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인하대병원 동15

병동 간호사 6명이 2인 1조 3개 조로 월별 24가구를 월 1회 가정방문 및 전화방문 시행으로 시작하였으며, 2014년 인하대병원 입원간호팀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찾던 중 말벗 도우미가 보람있는 것 중 하나로 채택되어 입원간호팀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22개 조 55명의 간호사가 자원하여 월별 66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4월 17일 자 동아일보, 인천일보 등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내용이 기사에 수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중구청과 MOU를 체결하여 중구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말벗 도우미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Q. 말벗 도우미를 하는 소감은?

노인 우울증에 대해 뉴스 교육으로 많이 접했는데 직접 방문하여 노인들을 만나보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디스크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타인의 도움 없이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병원조차도 한 달에 한번 가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면 그간에 있었던 안부를 전하느라 다른 집 방문 시간이 늦어지도록 말씀을 많이 하는 모습에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간단한 혈압, 혈당 체크만 할 뿐인데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 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죄송스럽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만남이 노인분들의 남은 여생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우울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 노인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일조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능나눔의 기회가 되어 마음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집에서 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약은 실온(1~30℃)에서 보관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며,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1) 약은 효능과 성분,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포장박스에 보관합니다. 욕실에 보관하는 경우 습기에 의해 약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부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주변은 피하여 보관합니다.
- 2)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 이내라도 색이나 냄새가 변했거나, 약끼리 서로 달라붙고, 원래 상태보다 말랑말랑해지거나 딱딱해진 경우, 알약에 금이 간 경우에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 3) 파스류 :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사용기한 내의 약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4) 안약류 : 사용하기 위해 개봉한 안약은 냉장 보관하며, 일반적으로 한 달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합니다.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옷장 안에 보관하는 경우 옷장의 방충제 성분이 흡착되어 눈에 자극될 수 있습니다.
- 5) 연고류 : 포장박스 및 안내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보관하되, 일반적으로 개봉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약효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에 개봉일을 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에서의 올바른 약의 보관과 폐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버릴 때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어린이로부터 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미국에서는 해마다 5세 미만의 어린이 6만 명 정도가 어른이 보지 못한 사이에 약을 잘못 복용하여 응급실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른이 잠깐 뒤돌아 있는 사이에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 1) 집에 있는 모든 약과 비타민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장소를 정하여 보관합니다.
- 2) 몇 시간 이내에 또 먹어야 하는 경우라도 식탁 위나, 아이 주변에 두지 않습니다.
- 3) 안전마개는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이 안전마개를 열 수도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 4) 아이에게 무슨 약이고, 왜 먹는지 설명하여 주며, 약을 잘 먹지 않는다고 약을 사탕이라고 속여서 주지 않습니다.



약의 안전한 폐기 방법

사용(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확인할 수 없는 약 등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 내에 비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셔야 합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아시면 편리해요

인하대병원 진료예약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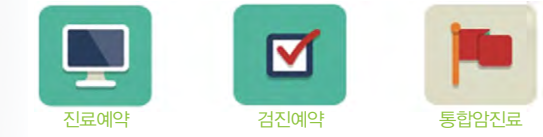
인하대병원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및 현장방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예약
 (http://m.inha.com)
 처음 오신 분
 빠른 예약



- ▶ 인하대병원에 처음으로 진료받으시는 분
- ▶ 회원 로그인 없이 진료예약이 가능합니다.
- ▶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전문상담원이 정확하고 빠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 운영시간 : 평일 08:30 ~ 16:30 / 토요일 · 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예약
 (www.inha.com)



- ▶ 회원 로그인 후 진료예약이 가능합니다.
- ▶ 예약하실 진료과 / 의료진 / 질환명을 검색하여 예약합니다.

전화 예약
 (032-890-2000)

- ▶ 전화예약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 예약
 (032-890-3998)

- ▶ 해당 번호로 진료 희망일자 및 시간, 진료과, 진료의, 연락처 등의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접수 후, 담당 직원이 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방문예약
 (외래접수 창구)

- ▶ 병원에 직접 방문하시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전 전화예약을 못 하신 경우는 진료 당일 예약도 가능합니다.

인하대병원,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지역에서 대학병원으로서 최초의 공적 사회공헌을 시작한다.

- 인하대병원, 사회공헌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심포지엄 성료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2014년 5월 26일(월), 병원 3층 강당에서 사회공헌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의료사업에서의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모색'을 의제로 인천광역시 의료원, 인천시청, SK텔레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모 병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 노력 등 인하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회적 공헌과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원내 자발적 봉사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과 의료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민간 분야 봉사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과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민관협력에도 앞장서며 지역사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 3월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발족을 통해 공공교육홍보 사업, 의료지원사업, 사회봉사사업, 해외지원사업, 민관협력사업의 5개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특히 민관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역 민·관계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라며 "특히 아프리카 우간다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지역사회는 물론 지구촌 소외계층과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부에 사랑의 성금 전달 -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지속적 관심과 사랑 가져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 내원객과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모은 사랑의 성금을 어린이재단(인천지부)에 전달했다. 인하대병원 임원실에서 실시된 이번 전달식은, 지난 2013년도 한 해 동안 원내 모금함을 활용해 모은 성금과 인하대병원 자체 후원금을 포함하여 총 300여만 원의 정성 어린 성금을 어린이재단에 전달함으로써, 지난 노력의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과 어린이재단은 지난 2008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

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라며 "특히 아프리카 우간다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지역사회는 물론 지구촌 소외계층과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의료관광의 하늘길을 여는 인하대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경증'

인하대병원의 2013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크게 향상되어 인천의료관광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10년 11,862명, 2011년 16,497명, 2012년 19,198명, 2013년 22,914명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하대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을 환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또한 언어권별 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의사소통 문제없이 환자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처리하여 만족도와 재방문 횟수가 높다."고 말했다.

최근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환자는 인터뷰

를 통해 "미국에 비해 의료비용은 저렴하지만 전문성은 뛰어나다고 판단되어 찾게 되었으며, 좋은 결과가 있어 아주 기쁘다. 다음번엔 관광 목적으로 꼭 방문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겠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앞으로 인하대병원은 공방의료센터, 인하국제의료센터(IIMC)와 협력하여 인천지역 내 의료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환자들이 인천지역 내에서 모든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며 "인천지역 중심 병원을 넘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정신적 아픔, 지역사회가 함께 나눕니다. - 인하대병원, 인천시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무료클리닉' 개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안산지역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에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는 현재 세월호 사고로 인해 생존자, 유가족 및 지역 주민의 사고 직후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및 장기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진행된 것이다.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인천시(시장 송영길)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재(인천연고 인원) 본인 및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무료클리닉'을 개설하여 그들의 정신적 상처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치료하고자 한다.

본 클리닉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하대병원 이경미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사고 당사자와 가족들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라며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인 정신적 치료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 전 임직원은 이번 사고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인천시와 함께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도실내체육관에 임시진료소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아픔을 함께하며 의료지원을 하였다.

인하대병원 인터벤션팀, 국제수준 학회에서 라이브 시술, 앞선 의료기술 선보여



2014년 4월 19일(토), 인하대병원은 대한 인터벤션 영상의학회 주최로 시행하는 '제 8 회 2014년도 GIRLS (Grand Interventional Radiology Live Symposium)'를 전남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며, 라이브 시술을 선보였다.

인터벤션 영상의학은 혈관조영촬영기를 비롯해 투시장비 등으로 말초혈관질환 등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GIRLS 2014학회는 대한민국 인터벤션 영상의학

의사들과 초청된 해외 유명 인터벤션 의사들이 직접 폐쇄성동맥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시술을 하며, 서로의 지식과 최신 시술법 및 기술들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인하대병원 인터벤션 영상의학팀은 이번 학회에서 전남대병원과 인하대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시술을 진행하며, 인터벤션 치료의 앞선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발전된 지식을 실시간으로 선보였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혈관 내 치료 교육센터(ETC, Endovascular Train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외 혈관 전문의사를 대상으로 혈관 인터벤션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당신의 미소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

인하대병원, 환자와 함께하는 가정의 달 이벤트로 쾌유의 희망 선물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어 가족들과 떨어져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와 함께하며,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쾌유의 희망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날에는 인하대병원 임직원들이 소아병동을 방문하여 '사랑의 책 선물 전달식'과 동화구연, 그리고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환아들에게 쾌유의 희망을 선물하였으며, 어버이날에는 병동에 입원한 어르신들에게 인하대병원 임직원들이 병마에 지쳐 거칠어진 어르신들의 손을 한 분 한 분 잡으며 쾌유를 기원하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어르신들은 몸이 편치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이 담긴 모습에 행복한 미소로 화답하였다.

김영모 병원장은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5월에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늘 안타까웠다."며 "고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외래특수간호팀,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인하대병원 외래특수간호팀으로 구성된 간호사 10여 명이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의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동참하여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답동 소공원에서 식사장소 세팅과 식사를 위해 배식장소를 사전에 말끔히 청소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일이 환한 웃음과 밝은 인사로 어르신들을 맞이하여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점심식사를 돕고 설거지와 청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였다. 이순주 외래 수간호사는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점심 한 끼로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주말을 이용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보람이 있어 앞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인하대병원 지역약품안전센터, '제 4회 약물유해반응 심포지엄' 성료



2014년 5월 19일(월), 인하대병원 지역약품안전센터(센터장 김철우)는 인천지역 약물감시시스템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제 4 회 약물 유해반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례로 알아보는 약물유해반응'이라는 의제 아래 다양한 주제로 인하대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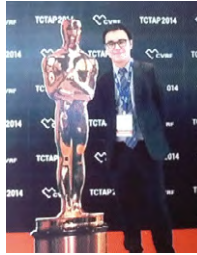
의료진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NSAIDs(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부작용과 올바른 사용, 약물제에 의한 중증 피부 유해반응, 유해사례 보고자료의 평가 및 안전성정보 생산, 약물에 의한 혈액학적 유해반응, 조영제의 개요 및 부작용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로 안전한 약물사용과 발전방향에 관한 최신 지견을 나눴다.

안승익 진료부원장은 “인하대병원 2011년 인천지역 유일하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선정되어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관리 및 약물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특정 의료기관에 한정된 약물 감시활동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약물관리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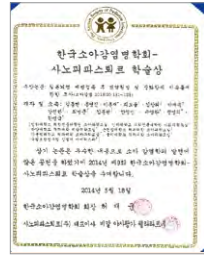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신호철 원장 -
'제2회 격역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금성심근경색 고위험군
사전선별 토대 마련' -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백용수 전문의,
TCTAP 2014 Best
Abstract Award 수상**



**소아청소년과
김동현 교수,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학술상 수상**



**'2016년 세계방사선사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
인하대병원 이정진
방사선사, 전국방사선사
학술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명칭의**



2014. 04. 07
출연: 임종한 교수/
직업환경의학
프로그램: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 유통기한의 비밀



2014. 04. 07
출연: 임종한 교수/
직업환경의학
프로그램: MBC 다큐스페셜
내용: 미세먼지와 폐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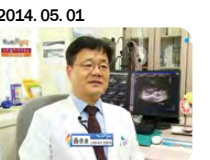
2014. 04. 10
출연: 김형길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내용: 소화기질환의
내시경적 수술



2014. 04. 26
출연: 이경미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프로그램: 남인천방송
NIB NEWS
내용: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2014. 05. 01
출연: 권대규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OBS 생방송 OBS
내용: 세월호 환자 관련 인터뷰



2014. 05. 01
출연: 송준호 교수/신장내과
프로그램: YTN 사이언스
You Are A 닥터
내용: 만성 신장병



2014. 05. 01
출연: 신용운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내용: 위암, 대장암, 식도암의
조기검진 중요성



2014. 05. 02
출연: 임종한 교수/
직업환경의학
프로그램: EBS 하나뿐인 지구
내용: 화성독



2014. 05. 02
출연: 이지은 교수/
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EBS 하나뿐인 지구
내용: 화성독



2014. 05. 02
출연: 신정현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EBS 하나뿐인 지구
내용: 화성독



2014. 05. 05
출연: 김철우 교수/
알레르기내과
프로그램: SBS 라디오 1분
건강칼럼
내용: 7가지 알레르기질환 관련
의학상식



2014. 05. 07
출연: 임종한 교수/
직업환경의학
프로그램: MBC 불만제로 UP
내용: 중금속 중독



2014. 05. 16
출연: 김동현 교수/
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MBN 건강솔루션
내용: 로타바이러스



2014. 05. 17
출연: 조세욱 교수/가정의학과
프로그램: KBS 소중환
내용: 경제적 약자 - 노인



2014. 05. 17
출연: 전용훈 교수/
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메디컬 TV
내용: 폴리오(소아마비) 예방접종



2014. 05. 25
출연: 김명구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SBS 일요특선
내용: 척추관절 노화



2014. 05. 25
출연: 조규정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SBS 일요특선
내용: 척추관절 노화



2014. 05. 26
출연: 신호철 교수/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프로그램: SBS 8시 뉴스
내용: 동남아 여행 홍역 급증

Info desk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유방전문과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6/12(목), 7/10(수)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홀수달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3638
암환자 음악 요법	암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진료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 세미나실	

공개강좌 안내

강좌 일정	제목	강사	장소
2014. 06. 13(금) - 오후 3시	갱년기 비만관리	가정의학과 이연지 교수	신세계 아카데미
2014. 06. 19(목) - 오전 10시	갱년기 여성질환	가정의학과 최지호 교수	송도 엑스포 아파트
2014. 06. 26(목) - 오전 10시	퇴행성 관절염 예방	외과 조영업 교수	신세계 아카데미
2014. 07. 03(목) - 오후 3시	갑상선암의 예방과 치료	신경과 박희권 교수	
2014. 08. 05(화) - 오후 3시	뇌졸중 바로알기		

●문의: 공공의료사업지원단 ☎ 032-890-2874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체험관 안내

강좌 일정	내용	장소
2014. 06. 09(월) - 오후 1시 ~ 5시	외과 전문의 참여하여 경동맥 초음파, 신체나이 측정	연수차 현대아파트
2014. 06. 13(금) - 오후 1시 ~ 5시		연수차 대림아파트

●연수구 보건소와 함께 합니다.

전시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4. 05. 30 ~ 06. 19	2014년 그룹 1279전	그룹 1279 / 김경순 외	2층 갤러리
2014. 06. 20 ~ 07. 10	제 2회 쌀롱 드 이디오	쌀롱 드 이디오 / 김민경 외	
2014. 07. 11 ~ 07. 31	사진전	김재선 등	3층 강당
2014. 06. 10(화)	<공연>키즈 오페라 '울러라 소리나무'	그랜드 오페라단	

●문의: 홍보팀 ☎ 032-890-2603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랑새 소식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 교육 예정
 - 일 시: 2014년 6월 12일(목), 2014년 7월 16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까지
 - 장 소: 3층 1세미나실

■ 지난 행사



◆ 2014년 4월 24일 을왕리 해수욕장 이번 야유회에는 항상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파랑새 회원들이 잡곡 밥도 함께 만들고 여러 가지 나물들과 반찬들을 함께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서 건강정보와 음식에 대한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고 지금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즐거운 야유회였다.



◆ 5월 22일 파랑새 체육대회
● 장소: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5월에 예정된 체육대회는 세월호 사건으로 야유회로 대체 진행되었다. 인천대공원에 모여 관요산 등산을 하며 건강을 다졌으며 환우 중에 웃음치료를 사격을 취득하여 봉사 활동도 많이 하는 오경애 웃음치료가 진행하는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 다음 행사

- 7월 - 등산 (일정 추후 공지예정)
- 8월 - 여름 휴가입니다.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 카페 cate.daum.net / inbluebird

인하대병원
최고의 가치는
바로 당신입니다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모바일 홈페이지 <http://m.inha.com>

인하대병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inhapr>